

“‘찾동’ 유공자 추천해주세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울시 19일까지 추천 접수 내달 표창장·포상금 전달 “안정적인 제도 정착 도모”

서울시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제도 안착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해 표창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9일까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확산에 힘쓴 공무원 10명과 시민(단체) 25명을 자치구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내달 상을 줄 계획이다. 유공 공무원 10명에게는 각 20만원씩 총 2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추천대상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우리 동네 주무관 활동을 수행한 공무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 문제 해결 등 지역 공동체로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한 공무원이나 시민 ▲찾동 활동 공적으로 언론 보도된 사례가 있는 공무원 또는 시민 ▲찾동의 비전과 목표, 가치를 구현하는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무원이나 시민 등이다.

시는 공무원을 추천하는 경우 기관 자체 공적 심의 시 추천 결격요건 심사를 철저히 하고, 시장 표창 결격요건 검

토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할 것을 당부했다. 또 시는 표창 추천 시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천 훈격 등을 정확히 표기해 표창 후 기재 내용을 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라고 덧붙였다.

시는 찾동의 성공적인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 공무원 추천시 제출 서류는 추천 부서에서 의결서, 공적조서 및 자체 결격요건 검토보고서 원본, 표창추천자 현황과 비위사실 확인서, 인사기록카드 사본 등은 자체 보관하고, 인사과 제출은 공문 첨부물로 대체할 것을 지시했다.

시는 “추천시 작성하는 내용(대상자 인적사항, 징계사항, 비위사실, 상훈)의 최종 책임은 자치구 추천부서에 있으므로 철저히 검토하고 추천 관련 서류는 향후 민원에 대비해 자체 보관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시는 서울시·자치구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자,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추천일 기준 1년 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음주운전·금품수수·공금횡령·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의 사유로 징계처

분을 받은 자,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공무원 등은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찾동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시민 화합을 이룩한 개인, 단체도 추천받는다. 추천대상은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에 1년 이상 공적이 있는 개인·단체다.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단체), 형사 처분을 받은 자이거나 산업안전보건법·공정거래관련법·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례가 없어야 한다.

제출 서류는 공적조서,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공적심의 체크리스트 등이다.

시는 이달 19일까지 찾동 변역을 위해 노력한 유공 공무원과 시민을 추천받고 다음달 중 표창장과 포상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시는 “2021년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으로 주민의 삶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공무원 및 시민(개인·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해 사기를 진작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올해 서울특별시 교통문화상 대상을 수상한 120다산콜재단 직원들. /서울시

120 다산콜재단, ‘서울교통문화상’ 대상

서울시 시민불편 해소 적극 기여

서울시는 2021년도 서울특별시 교통문화상 대상으로 ‘120다산콜재단’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 도시 교통의 안전과 교통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시민 또는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서울특별시 교통문화상’은 1999년 시작돼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했다.

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120다산콜재단은 서울시 최일선의 종합 민원 창구로 교통불편 민원을 접수하고 교통 관

련 전문 상담을 운영해 시민 불편 해소에 적극 기여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2007년 설립된 다산콜재단은 서울시 35개 부서, 24개 산하 공사와 출연기관, 38개 사업소, 25개 자치구와 보건소 등 총 122개 기관의 민원을 상담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서울시 현장 민원 중 교통 관련 내용은 72.04%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다산콜재단은 교통 관련 문의, 운행 불편, 분실물, 불법주정차 신고 등 다양한 민원에 대응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김현정 기자

‘G밸리산업박물관’, 11일 사전 오픈

서울시 서울 산업유산 보존·전시 상설·기획·미디어 3개 공간 개방

서울시는 옛 구로정수장 부지에 서남권 최초의 공공박물관인 ‘G밸리산업박물관’(구로구 디지털로 26길 38)을 만들어 이달 11일부터 사전 오픈한다고 7일 밝혔다.

G밸리산업박물관은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구로공단 일대 역사를 기념하고 서울의 산업유산을 수집·보존·전시하는 공간이다.

시는 “구로공단은 국내 첫 수출산업단지이자 국가산업단지로서 ‘한강의 기적’을 이뤘던 수출무역 전진기지 역할을 했다”면서 “경공업 중심이었던 구로공단은 IT·SW 산업 집약지로 성장하며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변모했



G밸리산업박물관 모습. /서울시

고, ‘G밸리’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넷마블계 임즈가 옛 구로정수장 부지 개발 사업으로 조성한 ‘G타워’의 2개 층(3·9층)을 기부채납 받아 연면적 2640㎡ 규모의 ‘G밸리산업박물관’을 만들었다.

G밸리산업박물관은 3층 전시 공간(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미디어 라이

브러리, 구로정수장 기념실 포함 연면적 2183㎡), 9층 지원시설(교육실, 회의실, 사무실 등 연면적 457㎡)로 구성됐다.

시는 사전 오픈 기간 동안 3층 전시실 중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미디어 라이브러리 3개 공간을 개방한다.

시는 상설전시실에서 ‘구로공단에서 G밸리로’를 주제로 전시를 진행한다. 1960년대 구로공단 조성시기부터 21세기 G밸리까지 과거와 현재의 서울 산업 역사를 만나볼 수 있다.

박물관은 매주 화~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입장료는 무료다. 관람을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하거나 현장접수를 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정상 운영

서울시는 ‘우리동네키움센터’를 동시간대 이용 이동수 제한 없이 정상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현재 25개 전자치구 186곳에서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운영 중이며, 자

치구별 설치 현황과 돌봄 수요를 고려해 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학교생 전용 돌봄 공간이다. 아이들은 방과 후 등 비

어 있는 시간에 자유롭게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백신접종을 완료한 외부강사, 자원봉사자의 출입이 허용되는 만큼 쉽고 놀이 중심의 다양한 콘텐츠 활성화로 돌봄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글로벌 공존·평화 방안 모색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이달 8~9일 ‘도시와 세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의제로 ‘제1회 서울 평화 싱크탱크 국제 콘퍼런스’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서울연구원이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등에서 활동하는 12개의 평화·안보 연구기관들과 발족한 ‘서울 국제 평화 연구 협의체’의 연례 학술회이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갈등 문제를 진단하고, 공존과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라고 시는 설명했다.

콘퍼런스는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째 날에는 오후 6시50분부터 ‘평화·안보 싱크탱크 협력 연구의 성과

와 과제’를 주제로 ‘서울 국제 평화 연구 협의체’의 회원 기관들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열리는 제2세션에서는 ‘동북아와 서울의 미래’라는 주제로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인식을 공유한다.

둘째 날 오후 7시부터는 오슬로 평화연구소(PRIO),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PIRI), 토다평화연구소(TOD A) 등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연구기관들이 ‘평화·안보의 지정학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제3세션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제4세션에서는 ‘메가시티, 서울과 일상의 평화·공존’을 주제로 분쟁과 갈등을 넘어 평화와 공존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58 | 해질 / 17:33

11월 8일 (월)
음력 : 10월 4일

수도권 날씨
12 ~ 12°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이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11/13, 동두천 11/12, 가평 8/11, 파주 10/11, 서울 12/12, 양평 11/13, 수원 12/12, 용인 12/12, 평택 12/1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바이든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제동...法 “중대한 법적 문제” /사진 뉴시스
▲ 내일 중 6중전회 개막...시진핑 장기 집권 명분 ‘역사결의’ 주목



▲ 이라크 총리관저에 드론 공격...美 “명백한 테러” 규탄
▲ 머스크 “테슬라 주식 10% 팔까요?”...트위터로 설문 /사진 뉴시스

▲ 각국 중앙은행 ‘통화안화 철회’ 시작했지만...국가별 온도차 커
▲ 영국의 신규확진자 3만693명, 3차 백신접종 한달 앞당겨